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JP 모건 보고서]

- 글로벌 경제: 리스크 초점이 침체에서 지속불가능한 부채로 바뀌었다

#### [미국 경제]

- WSJ: 8월 미 인플레 급등... 휘발유 가격 탕

####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5년 변동 모기지율 2011년 이래 최고치
- WSJ: 미국 감세 유지되고 재정 적자 커진다

#### [COVID-19]

- CNBC: 이번 주 출시되는 새로운 백신에 알아야 할 점들

#### [에너지]

- CNN Business: 리비아 대홍수로 유가, 10개월 만에 최고치
- WSJ: OPEC 에너지 영향력 주는데, 중국의 광물 영향력은 확대

#### [미국 생활]

- WSJ: 미 베이비부머 노숙자 늘어난다

#### [미국과 멕시코 교역]

- Bloomberg: 멕시코의 부상: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 economist: 거대 테크 기업들을 이기는 독창적인 기업들
- Bloomberg: 아메리칸 에어, 높은 임금과 유가에 이윤 전망 낮추다

#### [보고서]

- Harvard Business Review: 당신의 기업은 어디부터 GenAI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JP 모건 보고서]

#### JP 모건 글로벌 경제: Risk focus has moved from recession to debt 리스크 초점이 침체에서 지속불가능한 부채로 바뀌었다

- 백악관은 소프트 랜딩을 주장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미 경기 침체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경제가 긴축 통화여건에 놀라운 복원력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가 2% 목표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약한 가운데 핵심 리스크는 장기간 고금리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 투자자들은 실질 금리 향후 경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쟁은 팬데믹 전보다더 구조적으로 더 높은 금리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 미국의 장기 재정 전망과 부채 지속 가능성이 악화되는 것이 위기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

-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 2024년 대선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결돌로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잠재적인 향후 역할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 글로벌 금융안정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할만 하며 민간 신용이 은행 대출 긴축을 완충하고 있다.
- 탈달러화는 여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 라틴 아메리카 랠리는 모멘텀을 잃을 수 있지만 브라질과 멕시코는 다른 지역의 혼돈과는 달리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025년까지 지속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전쟁의 최종 승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터키의 거시적 과제 해결 능력에 대한 공식 채권단의 회의론은 시장의 긍정적인 견해와 대조를 이룬다.
- 터키의 거시적 과제 해결 능력에 대해 공식 채권단의 회의론은 시장의 긍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JP 모건 보고서

## [미국 경제]

### WSJ: U.S. Inflation Accelerated in August as Gasoline Prices Jumped 8월 미 인플레 급등... 휘발유 가격 탓

- 미 인플레가 8월에 가속화됐는데 휘발유 비용 탓이다. 그러나 물가 압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연준이 다음주에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 미 경제의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 측정치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에 전 달과 비교해서 0.6% 상승했다.
-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7월보다 빠른 속도라고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부는 발표했다.
-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는 전월에 비해 0.3% 상승했는데 지난 두 달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핵심 물가의 상승은 임대료, 차량 보험 및 의료비 등의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
- 연간 베이스로는 8월 물가가 연 3.7%, 7월은 연 3.2% 상승했다. 연간 핵심 인플레는 7월에 4.7%에서 8월에 연 4.3%로 떨어졌다.
- 연준 관리들은 지난주에 금리동결을 시사했는데 오늘 물가지수가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과 12월에 금리 향방은 향후 수개월간의 인플레 수치에 따라 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US Five-Year Adjustable-Rate Mortgage Reaches Highest Since 2011****미 5년 변동 모기지율 2011년 이래 최고치**

- 지난주에 5년짜리 변동 모기지율 평균이 최소 12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고정 모기지율도 올라 주택 구입 재정적인 여력이 여전히 큰 도전이 되고 있다.
-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계약하는 변동 모기지율이 0.25% 포인트 보다 높게 인상되어 6.59%를 기록해 지난 2011년 초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 30년 고정금리도 9월 8일 끝난 주에 6 베이스 포인트 오른 7.27%로 지난 2000년 후반 이래 가장 최고치에 근접했다.
- 모기지 신청건수는 전부에 28년 만에 최저치에서 1.3% 늘었지만, 노동절 등을 제외한 이른바 조정되지 않은 수치 기준에서는 구매 신청 지수는 거의 11% 낮아졌다.

Bloomberg 기사

**WSJ: Tax Cuts Are Here to Stay—and So Are Exploding Budget Deficits**  
**감세 유지되고 재정 적자 커진다**

- 요약: 최근 수십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꺼려왔다.
-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개입과 기업의 세금을 낮춘 2017년 법의 연장을 놓고 선거기간 동안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감세가 승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7년 핵심 개인 세금 조항은 2025년 이후 만료된다. 누가 선거 직후에 의회와 백악관을 장악하든 감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바이든은 이법을 부유층만을 위한 법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공화당은 모든 감세항목을 연장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이든이 재선되어도 2017년 대부분의 항목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에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가구를 위해 감세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연장 제안을 담고 있다. 바이든은 또한 연 40만불 이하 소득자의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WSJ 기사

**[COVID-19]****CNBC: New COVID vaccines could reach Americans as soon as Thursday – here's what you need to know****이번 주 출시되는 새로운 백신에 알아야 할 점들**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식약청 허가 이후에 모더나와 화이자로부터 새로운 백신이 공급된다고 어제 화요일 발표했다. 이번의 mRNA 백신은 XBB.1.5라고 불리는 오미크론의 변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백신은 전국의 약국, 지역 보건부 보건소, 커뮤니티 센터 및 기타 백신 배포 장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 그리고 약 3천만명의 무보험 미국인들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브릿지 액세스 프로그램(Bridge Access Program)을 통해 시민들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CNBC 기사

**[에너지]****CNN Business: Oil prices hit 10-month high after Libya flood catastrophe  
리비아 대홍수로 유가, 10개월 만에 최고치**

- 국제유가가 배럴 당 92불 이상으로 어제 화요일 상승했다. 이는 10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에너지 시장이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이러한 유가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며,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Kpler소속 수석 오일 분석 전문가인 Matt Smith는 리비아에는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많지 않은데, 이것이 유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As OPEC's Energy Influence Wanes, China's Minerals Clout Rises  
OPEC 에너지 영향력 주는데, 중국의 광물 영향력은 확대**

- 요지: 그러나 지리적인 면과 혁신 측면을 살펴볼 때 코발트, 리튬, 구리는 오일과 가스 만큼 효과적으로 무기화 될 수는 없다.
- 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43%, 아르헨티나는 리튬의 34% 칠레는 구리의 30%,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19%를 저장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의 전 세계 점유율은 12%, 러시아 천연가스 점유율 16%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 다운 스트림 생산은 훨씬 더 집중되어 있어 중국은 전 세계 코발트의 70%, 리튬의 65%, 구리의 42%를 정제하여 석유 생산량에서 OPEC가 차지하는 비중을 훨씬 초과한다.

- 중국 만큼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나라도 없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와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대에는 에너지 광물이 석유와 가스 처럼 효과적으로 무기화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석유와 가스의 필요성은 훨씬 크기 때문이다.

WSJ 기사

[미국 생활]

### WSJ: Why More Baby Boomers Are Sliding Into Homelessness 미 베이비부머 노숙자 늘어난다

- 은퇴를 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최근 임대료 인상등으로 미 전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 노숙자 현상의 주요 요인인 높은 주거비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소셜 시큐리티 노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건설되지 않은 저비용 지원 거주지 센터도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로 문을 닫고 있다. 가족이 해체되는 사회 현상으로 노인 지원이 줄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대부분 60대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의 후반기 계층은 이전 세대와 달리 연이은 경기 침체에 성인이 되었기에 뒤쳐져 있으며 재정적으로 덜 안정된 상황에서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다.
- 관련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홈리스가 쉼터에 거주하는 비율은 2018년에 16.3%에서 2021년에 19.8%로 늘었다.

WSJ 기사

[미국과 멕시코 교역]

### Bloomberg: Mexico's Moment: The Biggest US Trading Partner Is No Longer Chin

멕시코의 부상: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

-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무역을 재구축 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지정학적 라이벌 국가로부터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러 이유로 멕시코가 미국의 무역파트너로 부상했으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상품 수출 국가가 되었다.
- 멕시코 경제부 장관인 Iván Rivas Rodríguez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테슬라가 텍사스와 누에보레온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으며,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AGP Group, DSBJ, Brembo SpA를 비롯한 3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역시 같은 지역에 진출했다고 한

다. 또한 제너럴모터스, 기아자동차 그리고 BMW는 2021년 초에 멕시코에 전기자동차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또한 멕시코로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 그러나,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비즈니스 이해관계와 충돌하고 있다. 멕시코 기업들은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할수 있는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차입도 주저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 속에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전력망과 제한된 산업 공간,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은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 한편 멕시코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Gerardo Esquivel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로 향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니어쇼링으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얻을 수 있는 부양효과에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매년 GDP 0.7%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인용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 economist: The plucky firms that are beating big tech 거대 테크 기업들을 이기는 독창적인 기업들

- 미국의 5대 디지털 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Meta)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테크기업의 매출, 이윤 그리고 연구·개발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혁명에서 주요한 승리자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 기업이 기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새로운 테크 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런 와중에도 몇몇 독창적인 기업들은 틈새시장을 파악하고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 Gamin은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GPS의 상업화를 개척했던 기업이다. 이 기업은 애플이 첫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면서 건강과 아웃도어용 휴대기기 수요에 목표를 뒀던 사업 성장이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Gamin은 스마트 시계의 고급화와 GPS 추적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많은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 또 다른 기업은 드롭 박스(Dropbox)이다. 2008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설립 이래로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해왔는데, 드롭 박스의 경쟁력은 기능성이 있었다. 캐나다 왕립 은행의 Rishi Jaluria에 따르면, 드롭 박스는 사용자들이 단순히 파일을 보관하는 장소 이상의 기능을 원하는 것을 파악했다. 드롭 박스는 사용자들의 파일 용량에 불편함을 보완하거나,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도구를 도입해 문서를 찾거나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며 지속해서 새로운 가입자를 추가하고 있다고 한다.

## The economist 기사

**Bloomberg: American Air Cuts Profit Outlook on Higher Labor, Fuel Costs****아메리칸 에어, 높은 임금과 유가에 이윤 전망 낮추다**

- 아메리칸 에어가 3분기 수입 전망을 대폭 줄였다. 이는 항공유가 상승하고, 조종사들에 대한 새로운 계약에 따라 소급 지급될 임금이 2억 3천만 불에 달하기 때문이다.
- 오늘 수요일 아메리칸 에어의 주가는 오전 9시 32분경 5% 감소했으며, Spirit은 3.6% 그리고 Frontier는 7.6% 각각 떨어졌다.
- 몇몇 항공업계 경영진들은 최근의 노동절 연휴 이후에 더 많은 근로자가 사무실에 복귀할 것이며, 이는 2019년 아래에 머물러 있는 기업의 출장 수준을 올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보고서]****HBR: Where Should Your Company Start with GenAI?****당신의 기업은 어디부터 GenAI를 사용해야 하는가**

- 우리는 전세계 3천여명이 넘는 GenAI 사용자들을 조사한 결과, “지식노동”보다 더 정확하고 활동적인 새로운 업무분야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WINS 업무라고 한다.
- 구체적으로 WINS 업무는 기업과 산업이 단어(Word), 이미지(Images), 숫자(Numbers) 그리고 소리(Sounds)의 변화와 해석에 큰 영향을 받는 업무를 말한다. 가령, 프로그램 개발자, 회계사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는 WINS 노동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장 외과의사와 요리사는 지식노동자 이지만, WINS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GenAI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단순한 두가지 질문의 답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 얼마나 많은 비용 기반이 WINS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가 2) 현재 WINS의 입력이 얼마나 디지털화 되어있는가
- In the Crucible(현재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즉시 GenAI를 이해하고 수용해야한다. 예를들면,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전문 서비스, 금융 서비스, 교육 등이 있다. 이 영역에서는, GenAI를 빠르게 활용할수록 더 나아지고 빨라지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 Holding a Lever(기존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 “Holding a Lever”에 해당되는 기업은 비용 기반이 WINS업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객 최종 제품이 WINS이거나 디지털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enAI를 통해 비용, 시간 그리고 품질면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회사 모더나는 모든 직원들이 GenAI에 훈련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믿고 있는데 WINS 작업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 기술이라는 것이다.

- **Next in Line(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회사):** 이 기업들은 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업무들을 디지털화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가는 많은 인테리어 기업들은 소위 “디지털 프론트 도어(digital front door)”라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GenAI는 고객들이 현실 혹은 가상의 방법을 통해 가구를 배치해볼 수 있는 맞춤형화(Customization)의 새로운 수준을 가능하게 한다.
- **In the Balcony(디지털화도 WINS도 낮은 회사):** 많은 기업들이 이 항목에 있다. 아직 가치 창출의 과정에서 낮은 디지털화와 제한된 WINS업무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보통 단순노동의 업무가 많거나 높은 수준의 기술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정된다.
- **어디서부터 해야할까?** 먼저, 기업과 산업에 생산성, 변화 그리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GenAI의 모든 도구들을 배워야한다. 이는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은데, 강의를 듣거나 교육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직접 해보며,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 **이사진과 CEO는** 다목적 기능 팀을 구성해서 업무와 아래 단계과정 그리고 실질적 실험단계를 실행하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 **영업, 기술 그리고 재무를 통합한 다목적 팀이** 초기 시도에서 배운 것을 활용 가능한지 여부와 어디서 가능한지를 를 확인해야 한다.
- **GenAI 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얼마나 긴급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WINS 범위에서 비용 원인과 현재의 디지털화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 만약 귀사가 “In the Crucible” 이나 “Holding a Lever” 같은 준비된 회사라면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를 소요해GenAI의 활용을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전략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 만약 귀사가 “Next in Line” 단계의 회사라면 , GenAI에 대한 학습과 모든 WINS 작업의 디지털화를 시작해야 한다.
- 귀사가 “In the Balcony”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해서 배워야한다. 당장은 급해 보이지 않더라도, GenAI도구는 귀사의 사업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번역: 전성엽

HBR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5% 넘는 금리'에 美단기국채 인기...3개월간 1천300조원 몰려**

**개인은 물론 기업·자산관리업체·MMF 등 집중 매입**

최근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5%를 넘기면서, 불확실성을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기관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만기 1년 이하인 미국 신규 단기국채(T-bill)에 투자된 자금 규모는 지난 3개월간 1조 달러(약 1천330조원)를 넘어섰다.

미국이 상당 기간 이어졌던 제로금리 시기를 뒤로 하고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 상단이 5.5%에 이른 가운데 최근 단기국채 금리도 5%를 웃돌고 있다. 6개월 및 1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각각 5.5%, 5.37%에 이른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